

축산악취 해결 방안 모색

도의회 농산경제위, 논산 자원순환농업센터 방문 저감방법, 퇴비·바이오가스 생산 배경 등 질의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전북도 축산분뇨 및 악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논산시 체운면에 소재한 논산·계룡 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를 방문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논산·계룡축협은 30여년전 광석양돈단지에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조성하여 현재 운용 중이며, 1993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완공하여 지역 농가에 80만포(20kg/포)를 공급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축분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여 지역 농

지 3,000ha(년, ha당 살포량 : 35㎏)에 살포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액비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 7,740kW/일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폐기물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등이 농자재 및 전기, 가스로 전환됨으로써, 농업 및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가고 있다.

이날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 운용 현황을 청취한 후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을 방문 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김철수 부위원장(정읍 2)은 “액비를 매년 3,000ha에 살포하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나기화 위원(군산 1)은 축산농가 150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수거 등에 대해, 김정수 위원(익산 2)은 전라북도 내 양돈단지의 공통 민원사항인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광석양돈단지 발생 축산 악취 해결 방법에 대해, 오영근 위원(전주 2)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 퇴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농산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전북도의 축산분뇨 및 악취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라도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에서 견학·방문 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철저”

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장관 보고받고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검정, 명백히 못박히면 공정성·공신력 회복 못해 조직의 명운 걸고 책임져야”

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연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제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

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혹업소에서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제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백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말이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정치권, 새만금 신산업 메카 육성 나서

김관영 의원, 내부개발 촉진·전북 지방연구원 상생 법안 발의

새만금을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정치권도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혁신적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연연(이하 지방연구원)들의 새만금 진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전북도가 출연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 법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원은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아 연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주어지던 것이었으나 지난해 말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기업으로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해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 및 지방연구원들의 사업 공공성 확보를 우회 지원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 지방 연구원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정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해야”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북 지역에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이 탈락해 전북도민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필수적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의원은 “지난 1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 탈락되며,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됐다”며 “권역센터 탈락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잃은 전북도민에 대한 의료공백 상황이 가장 아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의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3.96%로 전국 17개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 가운데 가장 높고, 서울(0.88%)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망자 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의 안전과 지역을 지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필수적으로 위치하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41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고, 지역별로는 익산, 전주에 각각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35개소가 지정돼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안에 재지정에 관한 공모를 시작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지역 현안 논의·대안마련

평화당, 20일 도당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희망연구소 현판식

민주평화당은 20일 오전 9시30분 전북도당 당사에서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고 18일 밝혔다.

이날 논의될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문제, 한국 GM, 현

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정지원 요구, 호성공원 묘지조성사업 의혹의 건, 연동형비례대표제 세부사항 점검, 서산동 공동주택 문제점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최고위원회를 마친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산하

‘전북희망연구소’(소장 박주현 의원) 비전설명회 및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도당의 싱크탱크 ‘전북희망연구소’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부설로 설치되며, 연구소를 통해 ‘전북의 미래발전 비전제시’,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전략 연구’,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과 실천전략 연구’ 등을 그 역할로 맡게된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